

# 공공도서관의 외부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 특히 미국 LA 및 인근지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upport Groups for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Cases of the Los Angeles City Areas

오 동 근(Dong-Geun Oh)\*\*

### 〈 목 차 〉

I. 서론	III. 도서관재단의 활동사례 분석
II.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사례 분석	1. 도서관재단의 일반적 성격
1. '도서관의 친구들'의 성격과 기능	2.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활동사례
2. LA 및 인근지역 주요 '도서관의 친구들'의 활동사례	IV. 한국에서 외부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제언
3. LA 및 인근지역 주요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사례	V. 결 언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외부인적자원의 활용사례와 관련하여, 미국 LA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 도서관재단의 실제 활용 및 활동사례를 현장방문결과와 각종자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입수한 Los Angeles공공도서관과 그 중앙도서관 및 분관, La Crescenta공공도서관, Glendale공공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한국도서관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외부인적자원 -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 -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친구들, 도서관재단, Los Angeles Public Library,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general status and major activities of the Friends of the Libraries, volunteers, and Library Foundations in the areas of the County of Los Angeles areas, including Los Angeles City areas,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participation of human resources outside from the public libraries themselves. It based on the researcher's visits to the public libraries and their branches and their friend groups in the areas including those of Los Angeles Public Library, La Crescenta Public Library, Glendale Public Library, and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related materials given from those libraries and groups upon his visits; and othe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ir homepages. It finaliz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Korean library community related to the areas.

Keywords: Volunteers, Friend groups, Friends of the Library, Library Foundation, Los Angeles Public Library,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 본 연구는 2006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 접수일: 2008년 2월 12일 • 최초심사일: 2008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3월 21일

## I. 서론

현재 공공도서관은 점점 더 줄어드는 예산을 바탕으로 한정된 이용자집단을 놓고 다른 유사서비스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은 내부인적자원과 예산의 심각한 부족이라는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관심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인적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인적자원으로는 “도서관의 친구들”(Friends of the Library)과 자원봉사자(volunteers)가 널리 알려져 있다. 직접적으로는 “도서관의 친구들”은 모금활동(fundraising)이나 프로그램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개별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단체이며,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는 자료배달서비스나 자료정리, 어린이프로그램의 보조 등 도서관의 여러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다.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도서관에 우호적이면서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이 걸쳐 이러한 집단을 효과적으로 도서관경영에 활용해오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도서관의 친구들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논문으로는 김영석 교수의 두 논문<sup>1)</sup>이 있다. 이 논문들은 필자의 영국 Sheffield대학에서의 박사학위논문 연구과정에서 느낀 체험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친구들”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주요선진국의 활동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공공도서관의 사례에 대한 실제체험이나 직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연구논문으로는 설문원의 논문<sup>2)</sup>과 오동근과 김인식의 논문<sup>3)</sup>과 김인식과 오동근의 논문<sup>4)</sup>이 있다. 설문원의 연구는 국내자원봉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한 논문이며, 오동근과 김인식의 논문은 기부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것으로, 인적기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다. 김인식

- 1) 김영석, “도서관의 친구에 관한 고찰: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9, No.1(2005), pp.279-294.; 김영석,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친구’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 36, No.4(2005), pp.285-307.
- 2) 설문원,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 활용실태 및 관리모델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6, No.2(2002), pp.233-258; 설문원, 장효진, “도서관 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봉사표준모델 개발.” 도서관 문화 Vol.42, No.6(2001), pp.8-61.
- 3) 오동근, 김인식, “공공도서관의 기부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7, No.2(2003), pp.207-252.
- 4) 김인식, 오동근,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의 행동요인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Vol.22, No.2(2005), pp.185-204.

과 오동근의 논문에서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외국 공공도서관의 실제사례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용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 LA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실제사례를 체험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후원하는 중요한 단체로서 활용되고 있으면서 국내에는 거의 소개된 적이 없는 도서관재단(Library Foundation)에 대해서도 LA도서관재단(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조사를 위해 연구자는 2006년 12월말부터 2007년 2월말까지 미국 LA지역<sup>5)</sup>에 머물면서 Los Angeles공공도서관(이하 LAPL)과 그 분관들, 그리고 인근도시의 Glendale공공도서관, La Crescenta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장을 비롯한 주요책임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LAPL에서는 City Librarian인 Fontayne Holmes의 주재하에 1일간 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한 주요부서 책임자들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도서관 전체를 소개해주었다. 또한 La Crescenta공공도서관과 Pio Pico Koreatown분관에서는 '도서관의 친구들'의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실태 및 기부현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USC와 UCLA 등의 대학도서관과 Loyola고등학교 등의 학교도서관도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II.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사례 분석

### 1. '도서관의 친구들'의 성격과 기능

'도서관의 친구들'의 사전적으로는 "홍보와 모금활동을 통하여 특정도서관을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단체"<sup>6)</sup>로 정의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시민참여가

5) 국내에서 흔히 우리가 LA라고 하면 Los Angeles City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LA City는 Los Angeles County(994만명 이상의 인구에 1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가진 California의 카운티 중 하나로, 88개의 통합시와 미통합지역을 갖고 있다)의 대표도시이다. Glendale City는 규모상으로는 LA County에서 3위에 해당하는 도시이고, La Crescenta City는 미통합지역의 소규모 도시이다.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Los\\_Angeles\\_County\\_California](http://en.wikipedia.org/wiki/Los_Angeles_County_California)>)를 참조하라. 이 논문에서 LA지역이라고 지칭할 때는 기본적으로 LA C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6) Heartsill Young,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p.102.

일상화되어 있는 서구사회, 특히 미국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000의 친구들'(Friends of ...)은 도서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000박물관의 친구들'(Friends of ... Museum)나 '000시의 친구들'(Friends of ... City), '000공원의 친구들'(Friends of ... Park)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와 같이 '000의 친구들'로 불리는 단체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후원회'적 성격을 갖는 단체로서 도서관이나 박물관, 도시, 공원 등 사회전반의 주요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명칭에 있어서도, 서양의 경우, 'Friends of the ... Library'라는 명칭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단체들은 'Friends'라는 단어 대신에 'Associates'나 'Fellows'라는 단어를 쓰는 예들도 있고, '... Library Club'이나 '... Library Society Club'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sup>7)</sup> 영국의 경우는 그 단체의 활동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Library Action Group', 'Library Support Group', 'Library User Group', 'Library Matters', 'Library Campaigning Group'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sup>8)</sup> 실제로 Los Angeles Public Library의 경우는 "Friends of the Los Angeles Public Library"는 일반용어로 사용하고, 그 아래에 이를 다시 각 유형에 따라 LA시 전체도서관을 후원하는 "Overall Support Groups", 중앙도서관을 후원하는 "Central Library Support Groups", 개별분관도서관을 후원하는 "Branch Library Support Groups"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뒤에 살펴보게 될 'Library Foundation'을 후원하는 단체는 "Associates of the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9)</sup>

또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圖書館友の會'<sup>10)</sup>로 번역하고 있고, 임명순 교수 등은 'Friends Organization'을 '후원회조직'으로 번역한 바 있다.<sup>11)</sup> 실제로 LA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Pio Pico Koreatown분관에서는 한국어명칭으로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 정관에서는 'Library Friends'를 '도서관의 벗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도서관의 친구들' 또는 '000의 친구들'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견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000후원회'라는 수많은 단체들을 주위에서 익히 보아온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도서관의 친구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였던 각종 비영리기관에 대한 자발적 후원조직을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

7) Sarah L. Wallace. "Friends of Librarie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9(New York : Marcel Dekker, 1973), p.117.

8) 김영석, "도서관의 친구에 관한 고찰: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9, No.1(2005), p.281.

9) LAPL Homepage, <<http://www.lapl.org/about/friends.html>> [cited 2008. 1. 11].

10)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用語委員會 編, 圖書館用語集.(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88). p.235.

11) Donald J. Sager 저; 임명순, 남영준, 오동근 공역. 공공도서관운영론(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91). p.268.

12)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 정관" 제1조 및 제3조. LA :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 2006. 프린트자료.

고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조직의 경우에도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가보다는 그 성격으로 '도서관의 친구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3)</sup>

Wallace에 의하면 오늘날과 같은 성격의 '도서관의 친구들'의 예는 "책을 구입하고 도서관을 후원하기 위해" 1896년에 결성되었던 미국 California 주 San Juan Bautista의 'San Juan Bautista Library Auxiliary'와 10년 후에 같은 주 Davis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Davis Library Club'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sup>14)</sup> 비록 '도서관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많은 '도서관의 친구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00년대 초 독일과 프랑스의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sup>15)</sup> 이후 영미권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10여 개국에서 '도서관의 친구들'이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도서관의 친구들'이 "봉사활동이나 기부문화, 자발적 참여문화 등 미국인들의 독특한 시민의식과 일치"<sup>16)</sup> 한다는 점에서 특히 활성화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관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다. 따라서 그 기능은 이러한 후원에 관련된 것들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Dolnick<sup>17)</sup>와 김영석 교수<sup>18)</sup>는 그 기능을 ① 기금모금(fundraising), ② 자원봉사(volunteering), ③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④ 캠페인 및 로비활동(campaigning or lobbying), ⑤ 지역사회 연계활동(community involvement)<sup>19)</sup>과 같은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도서관의 친구들' 연합체인 FOLUSA에서는 매년 시상하는 'Best Friends Awards'의 시상부문을 보면, '도서관의 친구들'의 주요 기능과 활동분야를 잘 알 수 있다. 그 부문은 다음과 같다: ① 권익옹호자료부문(Advocacy Materials), ② 기금모금부문(Fundraisers), ③ 프로그램홍보(Program Publicity), ④ 뉴스레터:

13) "도서관의 친구들"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는 "도서관의 친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한국어가 여전히 복수형에 대한 표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언중의 언어습관상 "도서관의 친구들"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어연구원의 다음 자료가 참조가 될 것이다: "답변제목: '-들' 표현; 답변일자: 2001.03.02., 작성자: 국립국어원. "'-들'은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 그것이 복수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명사나 대명사를 굳이 복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경우 '-들'을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문법적인 규칙으로 복수형을 꼭 표시해야 하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아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에 복수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들'의 사용에 관한 분명한 규칙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스러운 직관이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n.go.kr/08\\_new/minwon/qna\\_view.jsp?idx=532](http://www.korean.go.kr/08_new/minwon/qna_view.jsp?idx=532)>.

14) Sarah L. Wallace, "Friends of Librarie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9.(New York: Marcel Dekker, 1973). p.111.

15) 김영석, *op. cit.*, p.282.

16) *Ibid.*, p.283.

17) Sandy Dolnick, ed. *Friends of libraries sourcebook*, 3rd ed.(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18) 김영석, *op. cit.*, p.282. 이 연구는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19) 김영석 교수는 '지역주민 연계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community'는 지역주민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주민과 각종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사회'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쇄물부문(Print Newsletters), ⑤ 웹사이트부문(Websites), ⑥ 회원관리: 소책자부문(Membership: Brochures), ⑦ 회원관리: 기타자료부문(Membership: Other Materials), ⑧ 도서관매(Book Sales), ⑨ 특별프로그램홍보(Special Project Publicity).

## 2. LA 및 인근지역 주요 '도서관의 친구들'의 활동사례

### 가. LAPL 및 중앙도서관

LA City의 공공도서관은 Los Angeles Public Library(LAPL)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과 71개 분관(Branch)으로 운영된다. LAPL의 도서관경영진은 City Librarian을 중심으로, 중앙도서관서비스부(중앙도서관장이 책임자)를 포함한 7개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도서관후원기관과 관련해서는, LAPL 전체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도서관재단(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이 구성되어 있고,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에는 별도의 '도서관의 친구들'이 구성되어 있다. LAPL에서는 개별의 '도서관의 친구들'에 대해 그 웹사이트를 링크시켜 주는 이외에는 별도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간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분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중앙도서관

LAPL의 중앙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도서관의 친구들'이 조직되어 있다.<sup>20)</sup>

- ① Docents: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대중들에게 투어를 제공해주고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Docents의 회원이 되고자 지원한 사람들은 통상의 경우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거친 후에 최소한 2년간 평균 1개월에 2회의 투어를 제공하게 된다. 일정조정은 1개월 전에 자원봉사 베이스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는다."<sup>21)</sup>
- ② BEST Friends: Best는 "Business and Economics and Science, Technology, and Patents Departments"의 약자로, 중앙도서관의 주제서비스부서인 비즈니스/경제부, 과학기술/특허부를 후원하는 조직이다.
- ③ FOCAL: "Friends of Children and Literature"의 약자로, "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특별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책, 저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FOCAL 어워드(award)를 제정하여 매년 캘리포니아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창작물을 발표한 저자나 삽화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20) LAPL Homepage, <<http://www.lapl.org/about/friends.html>> [cited 2008. 1. 11]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음.

21) Los Angeles Public Library Docents Application Form. leaflet.

- ④ Photo Friends: 중앙도서관의 주제서비스부서인 역사/가계부(History and Genealogy Department)와 관련하여, “역사사진컬렉션에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Lasting Images’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Shades of L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 ⑤ Culinary Historians of Southern California: “음식이 갖는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앙도서관의 요리관련컬렉션을 후원한다.”

이 가운데 FOCAL은 “어린이와 도서, 작가, 삽화자와 함께 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결성되어 LAPL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조직이다(홈페이지는 <<http://www.focalonline.org/>> 참조).

FOCAL은 당초 1979년에 LAPL 중앙도서관의 아동문학부의 프로그램과 자원을 후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작가, 삽화가 등 20여명으로 자원봉사자로 출발하여 현재는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다양한 연간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basic member, \$10), 준회원(associate member, \$25), 특별회원(contributing member, \$50), 후원회원(sustaining member, \$100), 평생회원(lifetime member, \$1,000)으로 구성된다. 회원들은 “작가나 삽화자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회원소식지인 ‘FOCAL POINTS’를 받아볼 수 있고, 각종 회의와 위원회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기를 수 있게 되며, 독서를 증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sup>22)</sup>

임원진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사와 작가, 교수, 아동서비스 담당자 등 어린이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FOCAL에서 벌이는 주요활동은 기금모금과 프로그램/이벤트의 개최 및 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금모금은 기본적으로 회원확보를 통한 모금 이외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매월 3째주 토요일 10:00부터 12:00에 열리는 ‘토요중고도서관매진’(Saturday Book Sales)과 현금과 현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부(donations)로 이루어진다.

FOCAL에서 후원하는 주요 프로그램과 이벤트로는 매년 FOCAL Award에 맞춰 개최되는 ‘시상식기념오찬’(Annual Award Luncheon), ‘일요일저자만남시리즈’(Sundays at Central Author Series), Peggy & Merv Miller 가에서 후원하는 여름독서클럽 오픈행사인 ‘Peggy & Merv Miller Science Day’ 등이 있다.

---

22) FOCAL 안내 팸플릿 자료.

〈표 1〉 FOCAL 임원진의 구성<sup>23)</sup>

직 위	이 름	현 직
회장	Caroline Gill	도서관미디어교사
부회장, FOCALpoints 편집자	Edythe McGovern	작가 겸 아동문학교육자(전임회장)
부회장, 회원관리	Renny Day	전직사서(FOCAL 창립자/전임회장)
간사	Jeanne Gervin	'할아버지와책' 프로그램 봉사자
회계담당자	Alex Muller	전직교수
섭외이사(LAPL 아동서비스)	Ilene Abramson	LAPL 아동서비스부 책임자
섭외이사(LAPL 아동문학)	Madeline Bryant	LAPL 아동문학부 선임사서
섭외이사(FOCAL Award Committee)	공석	
도서관매담당(전임회장)	Lara Clardy	전직교사
도서관매오찬담당	Barbara Abramovitch	아동문학장서가
그래픽/웹디자인담당	Jillian P. Greene	그래픽/웹디자이너(전직아동사서)
웹마스터/공동웹디자이너	Barbara Metzenbaum	아동사서(전임회장)
전임회장	Helen Muller	전직아동사서
단체회원	Diane Arias	작가
단체회원	Lauren Okayama	대학 아동학과 학과장

(2) LAPL 분관 및 인근지역 도서관의 사례

LAPL의 대부분의 분관은 '도서관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71개 분관 중 'Chinatown 분관'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민들이 거주하는 'Pio Pico Korea-town분관'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LA County의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들도 대부분 '도서관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한 바 있는 Glendale공공도서관과 La Crescenta공공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Friends of Chinatown Library<sup>24)</sup>

Chinatown분관은 LAPL의 71개 분관 중 가장 대출빈도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분관이다. 또한 이 분관의 '도서관의 친구들' 역시 도서관학 박사 출신으로 이 단체의 공동설립자이면서 현재는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Ruby Ling Louie(雷林娥柳) 박사의 리더십 아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3) FOCAL Homepage(<<http://www.focalonline.org/who.html>> [cited 2008. 1. 11]). 이 연구에서 굳이 임원진의 명단과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본인이 LA지역의 다수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임원진의 명단과 직업 등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친구들'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들의 면면을 확인하여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대다수의 도서관과 단체에서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기억 때문이다. 반면에 FOCAL은 그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참여자의 면면을 대략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이다.

24) 이 부분은 Ruby Ling Louie 박사가 본 연구자에게 제공한 각종 리플릿자료들과 Louie 박사와의 대담, Friends of the Chinatown Library Homepage(<<http://www.friendsocl.org/>>)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Friends of Chinatown Library'는 1977년에 설립된 이래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해당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LA에 거주하는 중국계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초창기 이동문고로 시작된 도서관서비스를 Castelar School의 빈 강당에 최초의 분관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후원(당시 명칭은 Chinatown Ad Hoc Committee)한 이래, 1983년과 1990년의 공공 기금과 민간기부금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확장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였고, 1998년에는 민간기부자들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아 현재의 분관이 개관하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명(mission)을 가지고 있다.<sup>25)</sup> (1) “도서관자료 및 서비스의 공적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계발한다.” (2) “자산증식과 테크놀로지, 서비스, 독서자료 및 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 프로그램을 증진시킨다.”

특히 이 단체는 이 분관의 어린이책/프로그램과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국문화유산컬렉션 (Chinese heritage collection), Jack Home 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장학기금, 학생들의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센터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기금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이 분관에서 운영하는 영어회화센터(ECC: English Conversation Center)와 GAB(Grandparents And Books)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기금은 도서관의 정규이용자 중 대학진학예정자에게 1986년 이후 매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도에는 대학진학예정자 10명에게 각각 \$1,500, 4명의 대학1학년생에게 각각 \$500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sup>26)</sup>

'도서관의 친구들'은 자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월간으로 소식지 *Friends of the Chinatown Library & Chinatown Branch Library Newsletter*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을 제공한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을 도서관입구의 벽면에 마련된 'Donor's Wall'에 명패를 붙여 기념하고 있다.

#### (나)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sup>27)</sup>

LA 코리아타운소재 분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인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Friends of Koreatown

25) Friends of the Chinatown Library Homepage, <<http://www.friendsocl.org/>> [cited 2008. 1. 12].

26) Friends of the Chinatown Library Homepage, <<http://www.friendsocl.org/scholarships.htm>> [cited 2008. 1. 12].

27) 이하의 내용은 Pio Pico Korea Town Branch Library의 Miki Lim 관장이 제공한 각종 리플릿자료들과 노재민 전 관장이 제공한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 정관”, 그리고 2007년도 정기이사회회의자료(회계보고서 포함) 등을 참고로 요약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7년 1월 27일 개최된 이 후원회의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참관하고, 2개월에 걸쳐 LA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돌아보면서 본 연구자가 접한 다른 “도서관의 친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타 도서관과 단체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 “도서관의 친구들”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낀 바 있다.

Library)는 1979년 발족된 이래 도서관이름을 “Pio Pico Branch Library”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30명의 이사와 연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276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sup>28)</sup>고 한다.

2006년까지의 활동 내역을 보면 인근의 ‘Friends of Chinatown Library’에 비교해볼 때 활동도 미약하고 그 총예산도 그들이 제공하는 장학금에도 못 미쳐 오히려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정관 제4조에서는 장서확충 및 그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도서관의 요청에 대한 협력, 도서관홍보 및 독서장려, 도서관과 지역사회간의 가교역할, 지역사회 문화 및 교육행사의 도서관유치 및 후원, 인근 타도서관에 대한 기금지원, 기타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들고 있다.<sup>29)</sup>

조직은 회원총회, 임원회, 이사회로 구성되며, 임원회는 대표회장, 공동회장, 총무, 재무, 기획위원장, 회원관리위원장, 홍보/섭외위원장, 사료위원장, 특별위원회, 이사장, 도서관장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또한 전현직 회장 및 부회장, 전현직 이사장 및 부이사장, 평생회원, 도서관장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현재 임원진은 대부분 한국계로, 전직대학교수, 전임도서관장, 목사, 서점경영자, 부동산사업자, 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도의 주요사업을 보면, 기금모금을 위한 2차례의 중고도서관매전을 개최하였고(연례행사임), 영어정관을 완성하였으며,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2008년 1월 현재는 불통), 도서관프로그램(뜨개질교실, 한지교실 등)을 후원하였으며, 독후감대회를 개최하였고, 도서관직원과의 크리스마스 조찬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2007년에는 한글뉴스레터 “책의 향기”(The Fragrance of Books)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sup>30)</sup>

2007년 8월에는 재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기금모금디너행사를 개최하여 2만3천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31)</sup> 이 금액은 전년도 전체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한인사회가 이 도서관을 후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임으로 보인다.

(다) Friends of La Crescenta Library<sup>32)</sup>

La Crescenta도서관은 LA County의 비통합지역에 소재한 작은 도시 La Crescenta City에 소재한 Los Angeles County Public Library 시스템에 속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분관의 하나이다. 장서규모 8만여 권에 단층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분관이라 할 수 있다.

28) 인터넷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 [cited 2007. 7. 23].

29)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 정관” 제4조, 이하 동일.

30) 인터넷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 [cited 2007. 6. 23].

31) 인터넷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 [cited 2007. 8. 24].

32) 이하의 내용은 이 분관의 분관장 Victoria Guagliardo가 제공한 각종 리플릿자료들과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입수한 이 분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의 회의자료, 이 분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의 소식지인 “Friends of La Crescenta Library News in Brief”를 바탕으로 하였다.

‘Friends of La Crescenta Library’는 1979년에 구성된 이래 2007년 1월 당시 20명의 평생회원 과 9개 후원기관을 포함한 5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간예산규모는 아주 미미하였는데, 수입은 주로 비디오 및 도서대여, 중고도서판매,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출은 아동프로그램 지원, 북마크경연대회시상, 도서 및 비디오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도서관의 친구들’의 입회안내자료를 보면 회원의 자원봉사업무로 도서관매지윈, ANGEL(책 및 기타자료 기부)로서의 활동, 도서관내 업무, ADVOCATE(기금모금 및 입법지원)로서의 활동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회원, 가족회원, 후원회원(patron), 장년회원, 학생회원, 평생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25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한권의 책에 이름을 새겨주도록 하고 있다.

이 분관의 특이한 점은 ‘도서관의 친구들’이 도서관내에 별도의 코너를 두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도서와 비디오를 유료로 대출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 수익금은 다시 해당자료의 구입이나 도서관의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도서관입구에는 중고도서판매코너를 마련하여 중고책을 판매하고 있다.

(라) Friends of the Glendale Public Library<sup>33)</sup>

Glendale City는 County of LA의 3위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로서, 1990년에 설립된 ‘Friends of the Glendale Public Library’는 “전 Glendale 커뮤니티의 도서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과 기금모금을 권장함으로써 현재 및 장래의 도서관서비스와 장서, 프로그램을 후원”<sup>34)</sup>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정관에서는 “(a) 해당도서관의 현재 및 장래의 서비스와 장서, 시설, 교육 및 기타활동의 개발과 확대를 후원하고, (b) 장서와 기타자원을 증진시키는 교육문화 및 기타활동과 이벤트를 후원, 조정, 실행하며, (c) 도서 등의 자료의 기증과 장서확장을 위한 자산의 기증을 요청, 증진, 권장하고, (d) 도서관의 서비스와 장서, 제반활동을 지원할 기금을 요청, 모금하고 관련활동을 후원하며, (e) 자산과 기금을 수집, 관리하고, (f) 기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sup>35)</sup>

회원은 연회원(annual membership)과 비즈니스회원(business membership)으로 구분하고 회비를 차등부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33) 이하의 내용은 이 도서관의 Nancy Hunt-Coffey 관장이 제공한 각종 리플릿자료들과 ‘도서관의 친구들’의 정관, 그 소식지인 “Friends of the Glendale Public Library News,” 해당홈페이지(<<http://www.friendsofglendalepubliclibrary.org/>>)를 바탕으로 하였다.

34) Friends of the Glendale Public Library Homepage, <<http://www.friendsofglendalepubliclibrary.org/>> [cited 2008. 1. 15].

35)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Friends of the Glendale Public Library. II. B.” dated Feb. 19, 1991. leaflet.

〈표 2〉 Friends of the Glendale Public Library의 회원구분

회원자격		연회비	현재회원수
연회원	개인회원	\$20	미상
	장년회원	\$10	
	학생회원	\$10	
	가족회원	\$40	
	특별회원	\$100 이상	
비즈니스회원	“애서가” 레벨	\$100	12
	“저자” 레벨	\$250	8
	“편집자” 레벨	\$500	2
	“출판사” 레벨	\$1,000	2

임원진은 회장 아래에 4명의 부회장(서점담당, 지역사회이벤트담당, 기금모금/지출담당, 회원담당), 회계, 서기, 법규담당, 도서관장, 그 밖의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모금을 위해 도서관매와 차량기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매는 중앙도서관 1층에 서점(Book Nook)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Amazon과 연계하여 “도서관의 친구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하여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게 되면 그 일부수익금을 받기도 한다. 또한 차량기증프로그램(Vehicle donation program)은 사용하지 않는 차량류를 기증받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1층 벽면에 마련된 “Tree of Friends”에 그 이름을 올려주고, 기업회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Honor roll of business donors” 코너를 두어 홍보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친구들’에서는 1990년 설립된 이래로 해당도서관에 무려 62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친구들’은 매월 1회 이상 열리는 작가/예술가 특강시리즈(Authors, Artists & Friends Series), 미국영웅사진전(American heroes), 어린이 여름독서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아동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후원하고 있고, 별도의 유료대출장서와 Book Nook도 운영하고 있다.

### 3. LA 및 인근지역 주요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사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도서관재단이 잘 조직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도서관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영역도 다양하다. 한 예로 Austin Public Library의 홈페이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sup>36)</sup>

36) Austin Public Library Homepage, <[http://www.austinlibrary.org/site/PageServer?pagename=vol\\_main](http://www.austinlibrary.org/site/PageServer?pagename=vol_main)>

- ①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도서관재단의 활동 참여 및 지원
- ② '도서관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구내서점 업무지원
- ③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지원
- ④ 청소년의 컴퓨터활용지원
- ⑤ 사무지원
- ⑥ 청소년서비스지원
- ⑦ 관외서비스지원
- ⑧ 사무보조업무지원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LAPL에서는 자원봉사서비스 담당자를 두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각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도서관재단도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LAPL에서는 각종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도서관의 친구들'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직접방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LA시장실에서 운영하는 'Mayor's Volunteer Corps'를 통해서도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의 친구들' 이외의 대표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는 'GAB'(Grandparents and Books), '책배달서비스'(Homebound Friends and Neighbors), '문맹퇴치프로그램'(Literacy), 특별이벤트(Special Events), 특별프로젝트(Special Projects) 등이 있다.<sup>37)</sup>

- ① GAB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독서하기"(Adults & Children Reading Together)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LAPL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어린이프로그램의 하나이다. GAB에서 자원봉사자는 GAB 리더(reader)로 참여하여 어린이의 독서흥미를 유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는 분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1주일에 2시간 이상 어린이와 함께 6개월간 독서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에 앞서 독서를 위한 기법을 훈련받게 된다. LA지역이 다 인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한다고 한다.
- ② 책배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재택거주자나 은퇴시설 및 건강관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책과 그 밖의 자료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대출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으로 우송하면 도서관에서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자원봉사자는 그 이용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자료를 대출받아 해당주민에게 전달해주게 된다.

[cited 2008. 1. 15].

37) 이하의 내용은 LAPL의 자원봉사담당자인 Toria Aiken이 제공한 각종 리플릿자료들과 LAPL의 해당홈페이지 (<<http://www.lapl.org/about/volunteer.html>>)를 참고로 요약하였다.

- ③ 문맹퇴치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는 LAPL의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문맹퇴치센터(Literacy Center)에서 운영하는 성인문맹퇴치프로그램(Adult Literacy Program)에서 튜터(tutor)로서 다른 성인에게 읽고 쓰는 기능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7시간의 튜토링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이 과정이 끝나면 'Laubach Literacy tutor'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튜터와 학생은 1주일에 2회 매회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의 모임을 갖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최소한 6개월간은 활동해야 한다.
- ④ 특별이벤트에서 자원봉사자는 어린이페스티벌이나 시낭송회, 저자주도의 독서토론회, 명사특강시리즈 등의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이벤트를 돕게 된다.
- ⑤ 특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컴퓨터나 전자자원을 소개해주거나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재단 선물가게(gift store)에서 일하거나, 도서와 자료를 정리하거나, 청소년이용자를 지도하는”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LAPL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스토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Central Library Store Associates)에 참여하게 되면 1개월에 1일 4시간 이상 도서관스토어에서 고객서비스나 판매, 장부정리, 가격산정, 제품배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개별분관의 경우에도, LAPL과 마찬가지로, 주로 '도서관의 친구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자체의 뉴스레터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회원가입안내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각종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의 경우는 대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약간의 교육을 거친 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LC County 공공도서관 Sunland-Tujunga분관의 경우<sup>38)</sup>는 학생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응급연락처 등의 신상정보와 자원봉사필요시간, 시간표, 관심있는 업무를 기재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원봉사자가 지켜야 할 규칙 등을 포함한 “New Teen Volunteer Training”이라는 이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도 'Mayor's Volunteer Corps'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를 작성한 후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도서관의 친구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성인의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주로 청소나 도서관내 장식물 설치 등의 허드렛일로부터 자료선정에 이르는 다양한 일들을 도와준다고 한다.

38) 이하의 내용은 이 분관의 분관장 Selena Terrazas가 제공한 리플릿자료 및 이 분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의 소식지인 "The Branchlet"을 바탕으로 하였다.

### Ⅲ. 도서관재단의 활동사례 분석

#### 1. 도서관재단의 일반적 성격

도서관재단(Library Foundation)이란 용어는 국내의 경우에도 '네티나무도서관재단'<sup>39)</sup>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이나 Microsoft사의 Bill Gates가 1997년에 설립한 바 있는 Gates Library Foundation<sup>40)</sup> 등을 통해 그 이름이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특정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도서관계 전반을 지원하는 도서관재단이 아닌, 특정의 단위공공도서관을 후원하는 도서관재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도서관재단도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대부분 공공재단의 성격을 갖는다. Goldenberg는 도서관재단의 가장 직접적인 활동은 "[도서관의]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수입을 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sup>41)</sup>

- ① 예산의 유연성: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공식적인 회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공공도서관 등에 유연하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
- ② 기금적립: 각종의 모금방법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는 마련하기 어려운 예비자금 및 도서관 신축기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 ③ 투자기회: 대부분 보수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자체의 투자정책에 따라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④ 지역사회 후원: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 재단의 이사진에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자원에 대해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 지역사회전반에 도서관을 알림으로써 모금 등의 활동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 ⑤ 지역사회의 신뢰: 도서관재단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과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의 이사진 참여 등을 통해 주민과 기부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된다.
- ⑥ 교부금 지원의 적법성: 공공도서관과 같은 세금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는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는 주요 재단이나 기업들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39) 네티나무도서관홈페이지, <<http://www.neutinamu.org/sys/>> [cited 2008. 1. 15]. 이 재단의 홈페이지나 발행 자료들을 보면 공식명칭에는 '네티나무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네티나무도서관재단'이 병기되어 있다.

40) 현재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자세한 내용은(<<http://www.gatesfoundation.org/default.htm>>)) 참조.

41) Benjamin Goldenberg, *Forming and Funding Public Library Foundation*, 2nd ed.(Chicago : PLA, 2004), p.7.

미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며, 그로 인해 제한된 특정의 기부자들을 놓고 두 단체간의 경쟁과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sup>42)</sup> 일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도서관재단은 도서관을 후원하기 위한 민간기금의 모금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sup>43)</sup>는 점이다. 예를 들면 Bozeman Public Library Foundation은 "[내국세법] 501(c)(3)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조직으로서, 특히 세금감면을 받는 기부를 받기 위해 설립되었다"<sup>44)</sup>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도서관의 친구들'도 모금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이나 도서관에 대한 조직적인 대외홍보활동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금모금 및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의 차이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소규모의 다소간은 느슨한 조직인 '○○학교후원회'가 좀 더 체계적인 공조적인 '○○장학재단'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때로는 특정지역의 '도서관의 친구들'이 다른 지역의 도서관재단보다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그 규모가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도서관에 도서관재단이 설립된 경우에도 별도의 다수의 '도서관의 친구들'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재단이 '○○도서관재단'이라는 이름 대신 '○○도서관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sup>45)</sup> 다만 명확하고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의 대략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의 일반적인 차이점

구 분	'도서관의 친구들'	도서관재단
주요활동	자원봉사 및 모금 중심	자금모금 중심
운영/의사결정	회원 및 이사회 중심	이사회 중심
회원확보여부	다양한 등급의 회원확보	대개 회원 없음, 'Associates'의 지원
주요수입원	회비 및 기부금, 도서관매대금 등	외부기부금 중심
전임직원	대개는 없음	있음(재단경비로 인건비 등 지급)

42) Sandy Dolnick, *The Essential Friends of Libraries: Fast Facts, Forms, and Tips*(Chicago : ALA, 2005), pp.43-44.

43) "Trustee Essential 24: Library Friends and Library Foundations," In *Trustee Essentials: a Handbook for Wisconsin Public Library Trustees*, <<http://dpi.state.wi.us/pld/te24.html>> [cited 2008. 1. 20].

44) Bozeman Public Library Homepage, <<http://www.bozemanlibrary.org/friends&found.html>> [cited 2008. 1. 20].

45) Benjamin Goldenberg, *Forming and Funding Public Library Foundation*, 2nd ed.(Chicago : PLA, 2004), p.10.



## 2.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활동사례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sup>46)</sup>는 1992년 ARCO의 회장 겸 CEO인 Lodwick M. Cook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 사명은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의 가치있는 자원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증진시키기 위해, LAPL의 장서와 자본증식을 위한 민간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동 재단은 도서관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프로젝트를 지원”<sup>47)</sup>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재단의 정관<sup>48)</sup>에 따르면, 이 재단은 회원을 갖지 않으며, ‘associates’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rticle II).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50명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Article III),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상임이사, 부회장, 감사, 회계담당자, 재무책임자 등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Article IV)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재단에는 회장 외에 재단관계, 기부자관계,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재정/행정, 전시, 문화프로그램, 도서관스토어 등의 각 부문의 디렉터를 포함한 재단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20명의 상주직원을 두고 있다.

이 재단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서관 associates”와 20대-40대를 주대상으로 하는 “Young Literati,” 특정분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분관결연(Adopt-a-Branch)프로그램, 배우 Gregory Peck의 주도로 독서시리즈 등을 운영하는 Gregory Peck Literary Endowment를 통한 모금, Awards Dinner 등 각종 자선이벤트를 통한 모금, 각종의 기념모금 등이 대표적이며, 도서관스토어를 통한 도서 등 각종 물품의 판매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도서관 associates”는 재단을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과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모금에 참여하는 후원그룹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에 따라 6개범주로 구분된다(〈표 4〉 참조).<sup>49)</sup>

한편 재단을 통해 기부한 기부자들은 기부금액에 따른 각각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표 5〉 참조).<sup>50)</sup>

LAPL 어워드디너(Awards Dinner)는 자선이벤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LAPL 문학어워드(LAPL Literary Award), 도서관재단 학문의 빛 어워드(LFLA Light of Learning Award),

46)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에 대한 이 장의 설명은 City Librarian F. Holmes와 동 재단의 Beverly Thrall이 본 연구자에게 제공한 각종 리플릿자료와 정관, 회의록, 뉴스레터, 연차보고서, 그리고 동 재단의 홈페이지(〈<http://www.lfla.org/foundation/index.php>〉)를 참고하였다.

47)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Homepage, 〈<http://www.lfla.org/foundation/index.php>〉 [cited 2008. 1. 20].

48) “Bylaws of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A California Nonprofit Public Benefit Corporation Without Members,” dated July 1, 2004, leaflet.

49)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Homepage, 〈<http://www.lfla.org/involve/associates.php>〉 [cited 2008. 1. 20].

50)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Homepage, 〈<http://www.lfla.org/involve/policy.php>〉 [cited 2008. 1. 20]; 2006/2007회계년도(2006년 7월-2007년 6월)의 기부자수는 *Los Angeles Public Library and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Annual Report*(〈<http://www.lfla.org/pdf/library.pdf>〉), p.14. 참조.

〈표 4〉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Library Associates의 구분

구분	연회비	특 전
Supporter	\$ 50	문화프로그램 및 저자이벤트에 대한 사전전자안내 도서관스토어의 15% 할인 도서관재단 뉴스레터 제공 격월간 도서관이벤트 일정표 제공 도서관 북마크 제공
Contributor	\$ 100	Supporter의 모든 혜택 도서관/재단연간보고서 제공 중앙도서관 및 지정도서관에 기념장서표 부착
Sustainer	\$ 250	Contributor의 모든 혜택 Gregory Peck Reading Series 초청장 2매 American Airlines® AAdvantage®에 500 마일리지 추가
Guarantor	\$ 500	Sustainer의 모든 혜택 Gregory Peck Reading Series 초청장 4매 American Airlines® AAdvantage®에 1,000 마일리지 추가 특별전시회개관식 초대
Conserver	\$ 1,000	Guarantor의 모든 혜택 뉴스레터 및 연차보고서에 등재 American Airlines® AAdvantage®에 2,000 마일리지 추가 대표기증자이벤트에 초대 주요이벤트의 무료발레파킹
Ambassador	\$ 2,500	Conserver의 모든 혜택 저자 및 전시관련목록의 사인본 증정 중앙도서관의 한 특수장서에 대한 특별투어 제공 재단회장 및 City Librarian과의 오찬 초대

〈표 5〉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구분	기부금액(\$)	06/07년 기부자수	특 전
Affiliates	1,000 - 4,999	205	공통사항에 준하는 대우
Bronze Affiliates	5,000 - 9,999	54	중앙도서관의 브론즈 카드목록함 기념명판에 기명
Platinum Affiliates	10,000 -	49	중앙도서관의 플래티늄 카드목록함 기념명판에 기명 승인된 중앙도서관공간에서 1회의 이벤트 개최기회
Guardians	25,000 -	6	중앙도서관 아트리움입구의 슬레이트패널에 가디언으로 등재 승인된 중앙도서관공간에서 2회의 이벤트 개최기회
Distinguished Guardians	50,000 -	6	중앙도서관 기증자의 벽(Donor Wall)에 우수가디언으로 등재 승인된 중앙도서관공간에서 3회의 이벤트 개최기회
Benefactors	100,000 - 499,000	11	중앙도서관 기증자의 벽(Donor Wall)에 후원자로 등재 승인된 중앙도서관공간에서 4회의 이벤트 개최기회
Major Benefactors	500,000 - 999,000	3	중앙도서관 기증자의 벽(Donor Wall)에 주요후원자로 등재 승인된 중앙도서관공간에서 5회의 이벤트 개최기회
Distinguished Benefactors	1,000,000 -	1	중앙도서관 기증자의 벽(Donor Wall)에 우수후원자로 등재 승인된 중앙도서관공간에서 6회의 이벤트 개최기회 상응하는 추가의 예우
공통특전			특별이벤트초대 연간보고서 및 해당뉴스레터 등재

도서관재단 기업자선어워드(LFLA Corporate Philanthropy Award)가 있다. 한 예로 2008년도의 어워드디너는 각각 극작가 Larry McMurtry와 LAPL 도서관재단설립자 John F. Cook, 기업 Wachovia에게 수여되며, 4월 30일 Beverly Wilshire Hotel에서 열린다고 한다. 이 어워드디너의 안내자료를 보면, 기념안내장에는 페이지에 따라 \$750, \$1,500, \$2,500, \$3,000, \$5,000, \$10,000의 광고가 게재된다고 한다. 또한 개인티켓은 각각 750달러이며, 참가자들은 기부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표 6〉 참조).<sup>51)</sup> 아울러 어워드디너에 참석할 수 없지만, 기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부도 함께 받고 있다.

〈표 6〉 어워드디너의 스폰서레벨

구분	후원금액	특 전
Silver	\$ 7,500	10인테이블 1개 디너프로그램 실버섹션의 반면광고
Gold	\$ 12,500	10인테이블 1개 디너프로그램 골드섹션의 전면광고
Platinum	\$ 25,000	10인테이블 1개, 선호하는 좌석배정 디너프로그램 플래티늄섹션의 전면광고
Diamond	\$ 50,000	10인테이블 2개, 우선석배정 모든 이벤트홍보자료에 이름/로고를 두드러지게 배치 디너프로그램 다이아몬드섹션의 전면광고
Angel	\$ 100,000	10인테이블 2개, 프리미어석배정 모든 이벤트홍보자료에 이름/로고를 두드러지게 배치 디너프로그램 엔젤섹션의 전면광고 이벤트석상에서 구두 감사표시 수상자와의 단독사진촬영기회 선물가방에 상표를 새긴 기념품 제공기회 도서관재단 프로그램이나 전시회의 후원기회
공통특전		초대장 및 디너프로그램에 후원레벨 등재

한편 이 재단의 2006/2007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후원금 및 수익은 총 \$8,728,475, 지출은 총 \$5,229,850였다(〈표 7〉 참조). 후원금 및 수익내역은 기부금 \$4,440,020, 모금이벤트 \$554,948, 도서관스토어수익금 \$488,113, 이자 및 배당금 \$440,903, 투자소득 \$2,744,750, 후순위자선신탁가치변경 \$59,741 등으로, 기부금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내역은 프로그램서비스 \$4,047,747(분관결연사업 \$297,704, 성인리터러시프로그램 \$354,489, 컴퓨터지원 \$83,500, 테크놀로지개선 \$962,793, 문화프로그램 \$633,419, 전시회 \$143,245, 아동프로그램 \$373,297, 도서관장서 \$404,178, 청소년프로그램 \$224,974, 도서관개선사업 \$107,097, 도서관스토어 \$463,051 등), 일반 및 행정비용 \$600,823, 모금활동경비 \$581,280 등으로, 도서관지원금에 77%이상을 사

51)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Homepage, 〈[http://www.lfla.org/pdf/AD08reservation\\_form.pdf](http://www.lfla.org/pdf/AD08reservation_form.pdf)〉 [cited 2008. 1. 11].

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APL의 2006/2007회계년도의 총 수입은 시지원금 \$112,079,387, 연방지원금 \$359,921, 주지원금 \$4,279,256, 기타수입 \$4,467,091, 신탁기금 \$644,403, 기부금 \$145,943 등 총 \$121,976,001이다. 이중 기타수입의 상당부분이 도서관재단의 프로그램서비스지원금(\$4,047,747)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서관 전체수입의 92% 가까이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볼 때, 도서관재단이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수입의 약 3.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것이다. LAPL과 유사한 규모를 갖는 Chicago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전체수입 \$106,674,526 중 Chicago Public Library Foundation의 지원금이 \$2,612,571(서비스비용(\$419,942) 포함)로,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2)</sup>

〈표 7〉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의 수입과 지출(2006/2007 회계년도)

수입(후원금 및 수익)(\$)		지출(\$)		
기부금	4,440,020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분관결연사업	297,704
			성인리터라시프로그램	354,489
컴퓨터지원	83,500			
모금이벤트	554,948		테크놀로지개선	962,793
도서관스토어수익금	488,113		문화프로그램	633,419
			전시회	143,245
이자 및 배당금	440,903		아동프로그램	373,297
			도서관장서	404,178
투자소득	2,744,750		청소년프로그램	224,974
			도서관개선사업	107,097
후순위자산신탁가치변경	59,741		도서관스토어	463,051
		소 계	4,047,747	
총액	8,728,475	일반 및 행정비용	600,823	
		모금활동경비	581,280	
		총액	5,229,850	

이 재단은 LAPL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① 독서증진프로그램: GAB(Grandparents and Books), 어린이독서클럽, 청소년독서클럽, 유치원생을 위한 'Read to Me L.A.' 등
- ② 청소년프로그램/서비스: 중고등학생의 대학준비 지원프로그램인 'Student Smart,'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컴퓨터교육프로그램(After-School Computer Aides),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과제해결을 위한 도서와 자료제공프로그램 등

52) Chicago Public Library / Chicago Public Library Foundation 2006 Annual Report  
(<http://www.chicagopubliclibraryfoundation.org/documents/annual-report-2006.pdf>), p.10.

- ③ 뉴 테크놀로지: 재단의 신정보기술기금(Fund for New Information Technologies)을 활용한 지원
- ④ 성인문화/문학프로그램: 저자와의 대화, 패널토론, 시사에서 종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좌, 시낭송회, 콘서트, 댄스공연 등 다양한 시리즈로 이루어지는 'ALoud at Central Library' 등
- ⑤ 성인리터라시프로그램: 학교에 재학중이 아닌 16세 이상의 영어사용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자원봉사튜터의 1대1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습 프로그램인 LEP(Limited English Proficiency)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5세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참여자는 'Families for Literacy'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활용할 경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Adult Literacy Web site'를 활용할 수 있다.
- ⑥ 중앙도서관의 전시회: 도서관재단은 1층의 갤러리와 2층의 Annenberg 갤러리 및 Getty 갤러리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를 후원하고 있다.

이 재단은 매년 연차보고서(*Los Angeles Public Library and 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 Annual Report*)를 발행하고 있으며, 계간으로 소식지(*Library Foundation of Los Angeles*)를 발행하고 있다.

#### IV. 한국에서 외부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제언

이상에서는 미국의 LA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외부인적자원, 특히 '도서관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 도서관재단의 활용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도서관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물론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입수한 비공식적인 자료와 각종 리플릿자료, 유인물과 해당도서관이나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광진정보도서관이나 동대문정보도서관 등 몇몇 '도서관의 친구들'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그 밖의 각종 도서관관련단체들이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도서관설립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도서관의 친구들'을 국내에 소개한 김영석 교수 등의 주도로 미국의 FOLUSA와 같은 조직인 '도서관의 친구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도 가졌다고 한다.<sup>53)</sup> 학계와 현장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차후 특히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조직을

53) 도메리클([http://www.domeri.or.kr/DMR\\_mailingList/Mailing\\_View.asp?g\\_idx=18274&Page=1](http://www.domeri.or.kr/DMR_mailingList/Mailing_View.asp?g_idx=18274&Page=1)) 참조.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열의와 애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짧은 기간, 제한된 수의 기관이지만 직접 그 현장을 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도서관의 친구들'은 그 사명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사명취지문'(mission statement)을 갖추고, 이를 정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친구들의 사명은 Sunland-Tujunga 분관에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어린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평생 동안 도서관과 독서를 사랑하도록 권장하고자 한다"<sup>54)</sup>라고 밝히고 있는 아주 작은 분관의 경우와 같이,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도서관재단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공익법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는 소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친목단체나 동호회, 독서클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영리의 자선적 목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도서관재단을 보호해주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또한 소수의 특정개인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사적조직이 아닌 비영리공익단체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도서관 관련 단체를 정치적 활동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한 사례를 익히 보아왔고, 그러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경험도 목격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돌아본 LA지역의 일부도서관의 경우에도 영세한 조직임에도 배타적 조직으로 운영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들이 있었다.

셋째로, 기금모금과 관련해서는 기부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세법상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8419호)에 의해 법절차에 따른 등록만으로 기부금의 모금이 가능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도 많다. 또한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와 조세특례제한법 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의 규정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기부금품을 모금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세제상에 관련된 각종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은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501(c)(3)의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넷째로, 더 체계적인 모금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LAPL의 도서관재단과 같은 도서관재단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도서관재단은 문화재단 등을 다른 재단을 통해 모금하거나 후원받은 자금의 일부로 도서관을 지원하는 대신에, 전적으로 도서관만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다는 점에서,

54) "The mission of the friends," *The Branchlet: The Friends of the Sunland-Tujunga Branch Library Newsletter*, Vol.17, No.2(2006).

그리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을 위한 기금모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출향인사,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유지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홍보, 로비 등의 전반적인 면에서 도서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재단은 특정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과 같은 대규모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전체의 ‘도서관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LAPL 중앙도서관 아동서비스부의 FOCAL과 같은 주요 서비스 영역별 후원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국립디지털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들’이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밖의 다른 단체들도 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섯째로,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도서관재단에서는 필요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해야 할 것이다. LAPL의 많은 ‘도서관의 친구들’과 LAPL 도서관재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질향상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이 더 수준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일곱째로, ‘도서관의 친구들’이라는 이름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리아타운도서관후원회’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인에게는 후원회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더 선호될 수도 있다. ‘도서관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일견 외국에서 수입된 전혀 새로운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친근한 이름으로 ‘후원의 문화’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시대 서원, 특히 민간서원을 후원하던 “장학계”(獎學契)<sup>55)</sup>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과 그러한 교육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장서에 대한 후원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다.

여덟째로, 도서관계인사들의 도서관에 대한 자원봉사와 ‘도서관의 친구들’ 도서관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는 점이다. 우리 도서관계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배려에 지나치게 집착한 면이 많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구대비 문헌정보학 전공자수나 교수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이 도서관도 선진국이라고 자랑스레 말할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계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도서관계 종사자들이 저마다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각자 자기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간다면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길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LA지역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들’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의 상당수는

55) 조선시대의 서원의 장학계는 훈장의 생활비, 노비관리비, 장서구입비, 서적간행비 등을 포함한 서원의 전반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장학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과 기부액수”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임고서원장학계안부절목”(臨臯書院獎學契案附節目)의 수록기(收穀記)에서도 볼 수 있다(배현수, “(臨臯書院所藏典籍)解題”, 영주 : 태일사 영인, 2003).

전직도서관계 인사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부족한 '도서관의 친구들'이나 장차의 도서관재단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아울러, 개별조직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FOLUSA<sup>56)</sup>와 같은 단체의 조직과 함께, 한국도서관협회 등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 결 언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금에 의해 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적자원이나, 시설과 장서를 포함한 물적자원의 확보와 운용은 운영주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외부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공공도서관을 인적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대표적인 조직이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이다. 국내의 경우는 '도서관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후원하는 조직들이 등장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고, 아직 일반인에게는 낯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체도서관이 아닌, 순수하게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기존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도서관재단도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의 태안 기름유출사건 등의 예에서 널리 알려지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국내에는 일반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도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부문화도 일반국민에게 널리 정착화된 단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정보와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도서관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늘어나듯이,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참여욕구도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열의를 공공도서관으로 유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친구들'과 도서관재단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조직들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의 문화와 환경, 사회적, 법률적 조건에 맞추어 설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외부인적자원의 활용에 따르는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족으로 부연하고자 한다. "친구"가 친구 이상의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거나 후원단체들이 진정한 후원 내지 지원을 넘어서서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을 할 때, 친구는 상황이 악화되면 "적"으로 돌변

56) 자세한 내용은 FOLUSA Homepage, <<http://www.folusa.org/>> 참조.



할 수도 있고 후원단체는 후원자가 아닌 “알곳은 시어머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전문사서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조차도 “아마추어 자원봉사자”에게 떠맡기고 싶은 유혹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인적자원을 도서관에 끌어들이게 되면 전문직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